

12 제습제

세정·살균



01

제품

- 벽장이나 옷장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습도가 높은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.
- 물이 고이는 타입은 염화칼슘의 흡습성과 조해성을 이용한 것으로 2층 구조로 된 용기 상층의 염화칼슘 입자가 습기를 흡수하여 하층에 조해액이 고이는 탱크 타입이 많고 그밖에 겔화하는 팩 타입도 있다.
- 또 재생 가능한 제품으로써 실리카겔이나 특수 흡습 섬유를 이용한 제품이 있지만, 화학적으로 불활성하므로 중독되기는 어렵다.

02

초기대응 포인트



경구 노출

- 토하게 하지 말고 입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 후, 유제품 또는 물을 마시게 한다.
- 얼굴, 손발, 의복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, 샤워 등으로 전신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.

즉시 진료

- 구강 점막의 발적이나 종창, 통증, 소화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
- 증상은 없더라도 입자나 조해액을 대량으로 먹거나 마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

경과 관찰

- 입자를 헹거나 조해액을 소량 마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



눈에 들어간 경우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, 즉시 세안한다.

즉시 진료

- 눈 뜨기 곤란한 경우
-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
-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

만약을 위한 진료

- 세안 후에도 통증, 충혈 등이 있는 경우



피부 노출

만약을 위한 진료

- 세척 후에도 발적, 통증, 발진 등이 있는 경우



흡입한 경우

- 제품의 성질상, 흡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.



경구

- 구역질, 구토, 설사, 위 불편감, 가벼운 복통
- 대량 섭취에 의해 국소 조직 손상(젓무름, 궤양, 괴사), 고칼슘혈증, 산성혈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



눈

- 가루나 입자는 일과성의 자극과 표재성 손상. 수용액의 보고는 없다.



피부

- 발적, 가벼운 화학 손상

염화칼슘

- 물속에서 격렬하게 용해되어 다량의 열을 방출한다. 수용액은 알칼리성이다.
- 단, 입자를 핥거나 조해액을 소량 마신 정도로는 심각한 중독은 일어나지 않는다.



경구

- 1) 제거 |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뱉게 한다.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, 닦아낸다.
- 2) 행굼 |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.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.
- 3) 수분섭취 | 유제품(우유나 요구르트) 또는 물을 마신다.
마시는 양은 120~240mL
(소아는 체중 1kg당 15mL 이하, 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).
▶ 이유 : 단백질에 의한 점막보호나 희석으로 자극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.)



눈

-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,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.



피부

- 1) 제거 |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.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.
- 2) 세척 | 충분히 물로 씻는다.

계면활성제

[흡수] 분자구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소화관에서 흡수된다.

[대사·배설] 간에서 대사된 후,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설된다.

산, 알칼리

[흡수] 보통, 피부·점막에서의 흡수 독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. 구연산은 소화관에서 잘 흡수되지만, 제품 중의 함유량을 고려하면 구연산의 흡수 독성은 거의 무시할 수 있다.



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I

※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.